

# 고대법학

2012 Fall, First

발행일 2012년 9월 30일, 제1호 발행인 박노형 편집인 정승환 편집장 문선영(3기) 편집부 이지은(3기), 김승현(4기), 김혜경(4기), 이윤석(4기), 이지현(4기) 발행처 136-701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1421 FAX 02-927-8819 e-mail Kulawgive@korea.ac.kr 기사문의·제보 02-3290-2871 기획·편집 디자인나무와물고기 TEL 02-3296-3746

**OPINION** 이용훈 석좌교수(전 대법원장) 특별강연  
역사관과 철학이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COLUMN** 열정과 긍지의 붉은 피에 잠식당하다

**GRADUATE INTERVIEW** 5인3색, 선배들에게 길을 묻다

**PEOPLE MEET** the WORLD-CLASS TEACHING

**SEASONS OF KU LAW** 고 이항녕 선생 기념강연 / 고연전

The Beginning:

**THE  
SEEDS OF  
NEW  
EVOLUTION**

이용훈 석좌교수(전 대법원장) 특별강연

## 역사관과 철학이 있는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2012년 9월 21일 이용훈 석좌교수(전 대법원장)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는 대법원 2010.12.16.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유신시절 정당한 입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대통령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그 불법적 법률을 대하는 법률가의 태도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역사관과 철학적 가치관이 없는 법률가는 맹목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기계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이 법률가의 길에 들어서려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역사와 철학을 아는 법률가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강연장의 좌석이 부족해 많은 학생이 서서 들어야 했을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하였다. '고대법학'의 창간에 즈음하여 고대법학이 지향하는 바를 시사하기도 하는 이 전 대법원장의 강연을 다시 한 번 음미하고자 강연에 참석했던 법전원 학생의 참관기를 신는다.



이용훈 교수님  
강연회 소고

### 국가와 국민을 살피는 법률가의 책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김노은

지난 2011년 12월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되신 이용훈 교수님의 '헌법과 법치주의' 강연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후 정치권력 앞에 헌법과 법률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던 1972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당시 이용훈 석좌교수님은 의정부지원에 근무하셨기에 그 시절의 사회, 특히 사법의 역사를 깊이 기억하고 계셨다.

보통 생활범죄로 분류되어 징역 6월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끝났던 사건들-대마초와 같은 마약사건, 강패가 연루된 폭력사건, 윤락행위법위반 사건-이 계엄이후 '계엄사건'이라는 분류 아래 징역 3년 등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었

다. 그럼에도 당시 판사들은 계엄령에 따라 구형된대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고 이는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사건이었다고 비판하셨다. 유신헌법과 그로 인한 긴급조치는 법률의 내용자체도 위헌적인데다 절차도 적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0도 5986 판결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대상이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판시-구 대한민국헌법(1980.10.27.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적으로도 긴급조치가 그 효력을 발생 또는 유지하는 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 등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국회에서 긴급조치를 승인하는 동의 조치가 취하여진 바도 없다-하였다.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 의한 히틀러의 비상계엄도 같은 맥락에서 짚어보았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모든 신문과 방송의 금지' 등의 위헌적 계엄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령이 기존의 부패한 정치를 혁파할 것이라고 믿었다. 독일의 지식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동조하지는 않더라도 다종의 위협에 휘둘러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하고 말았다. 그 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년 1933년에 Ermächtigungsgesetz, 수권법이라고 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나치독일 시대를 이끌었다. 여기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는데 도움을 준 이가 바로 다름아닌 '법률가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법률에 의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도 침묵을 지키고 심지어 동조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위협할 수 있다. 모름지기 건강한 사회란 언제나 건전한 비판세력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법률가는 바로 그러한 비판세력이 되어야 한다. 법대로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지 살피고 반성하여 사회의 등불로서 법률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위의 2010도5986 판결에서 대법원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과 연관지을 수 있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으려면 '법제정과정'부터 집권자의 의사가 아닌, 국민들의 표현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8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온 '법은 일반의사의 표현이다'라는 문구는 이러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이 실제적 통치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KL**

## 열정과 긍지의 붉은 피에 잠식당하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배지연



어느덧 고려대 로스쿨에서의 생활이 중반을 넘고 있다. 나 스스로도 낮간지럽던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자기소개서를 썼던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고대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가 친숙하다 못해 운명(혹은 굴레)처럼 다가온다. 학교 앞에 새로 생긴 밥집이나 카페를 '다수설은 어떻게 유력설은 어떻게'는 등의 시시껄렁한 유머로 평가하는 것조차 이전 더 이상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여진다. 충격적이다.

### '하나 되는' 고연전에서의 떡떡한 감동

더 충격적인 일은 이를 전 고연전에서 내가 느낀 감정이다. 그래도 졸업 전에 한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 들른 것뿐 사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언제 이렇게 붉은 물이 든 게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변한 내 자신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얼굴은 자주 봤지만 서로 이름도 모르고 이야기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학우와 어느새 자연스레 어깨동무를 한 채, 느린 템포의 뱃노래에 맞춰 내가 어깨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명 프리미어리그도 아닌 K리그 경기를 관람하는 정도의 기대만 하고 잠실 경기장에 입성했지만, 어느새 나는 축구는 뒷전이고 '엘리제를 위하여' 찌르기 손동작을 무한 반복하며 얼굴이 벌게져 있었다. 이름 모를 옆 학우의 적당히 시큼한 땀내마저 정겨웠다.

연신 손을 흔들며 응원단 뒤편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힐끗힐끗 훑쳐보던 중이었다. 왓! 연세대 쪽 골문으로 붉은 공이 날아들고 있었다. 공을 걷어내던 연대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마침내 공이 골대 안으로 '슛' 들어가던 순간, 잠시 멍~하더니 머리 뒤쪽으로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

로 분비됐다. 정말이지! 나는 내가 그 정도로 기뻐 줄은 몰랐다. 로스쿨 와서 가장 기뻐던 순간이 바로 A+ 성적을 처음 받았을 때였는데, 우리 고대의 공이 연대의 골문을 터뜨린 그 순간의 짜릿함이란 정말이지 내 상상을 뛰어넘고도 남았다. 필쩍필쩍 뛰는 것도 모자라 뱃노래가 온몸을 휘감았고 응원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윽고 후반전에 들어서 정신없이 '오빠 고대 스타일!'을 외치는 사이 훌쩍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경기 종료 2분 전, 과연 이대로 우리의 승리가 확정된단 말인가...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갔다. 그렇게 마지막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던 순간,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고려대의 승리! 올해 올림픽 한일전에서 이겼을 때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다.

사실 고려대 로스쿨에서 법학을 배워나가는 과정도 내가 고연전에 스며들었던 과정과 느낌이 비슷하다. '자, 응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는 사람이 없듯, 법 공부 역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사람도 매뉴얼도 없는 터라 알 길이 막막했다. 그저 옆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부분 어떤 책을 보는지 어깨 넘어 조금씩 흉내를 내다보니 어느새 책장에는 법서가 가득해졌고 이제는 책을 빠르게 읽어나가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까지 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내 자신을 로스쿨 학생이라 소개하기도 다소 쑥스럽고 어색했는데 구르고 또 구르다 보니 어느덧 스스로도 당당하고 어엿해져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말이다. 교정에서 보낸 시간이 쌓이면서 머릿도 제법 법학에 물들었고, 학교에서 자주 나눠주던 빨간 옷들로 옷장도 붉게 물들어간다.

### 나는 '붉은' 고대 로스쿨인임이 자랑스럽다

벌써부터 아쉽다. 언젠가는 정든 고려대학교 교정과 학우들을 매일 볼 수는 없는 날이 오겠지? 때로는 슬한 시험과 경쟁에 지쳐 힘들었던 적도 분명 있었지만, 졸업 후에는 스스로의 내공을 누가 더 열심히 키웠는지, 누가 더 열심히 자신만의 지성을 가꾸었는지 하는 낭만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 시간들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온다. 회사나 로펌에 가건 검찰이나 법원에 몸담는 공무원이 되건, 졸업 후에는 아마도 '나'를 잊은 채 단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포함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누가 더 치열하게 임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남을 도우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 특히 법률가라는 특정한 직업군에서 열심히 일을 할수록 우리가 배운 바대로 실제적 정의의 구현해나가는 것이므로 그 땀과 노력은 매우 보람된 일일 것이다.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철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말이다.

입학식에서 붉은 스카프를 선물 받은 이후 내 마음에도 고려대 로스쿨의 정신이 자연스레 붉게 물들어갔다.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든다. 같이 입학했던 학우들 그리고 선배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사랑스러운 로스쿨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친 후 사회에 진출해 고대 로스쿨 동문들을 만나면, 겉으로 내보이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서만 자랑스러운 붉은 배지를 서로 확인하고 어깨를 힘껏 안아주고 싶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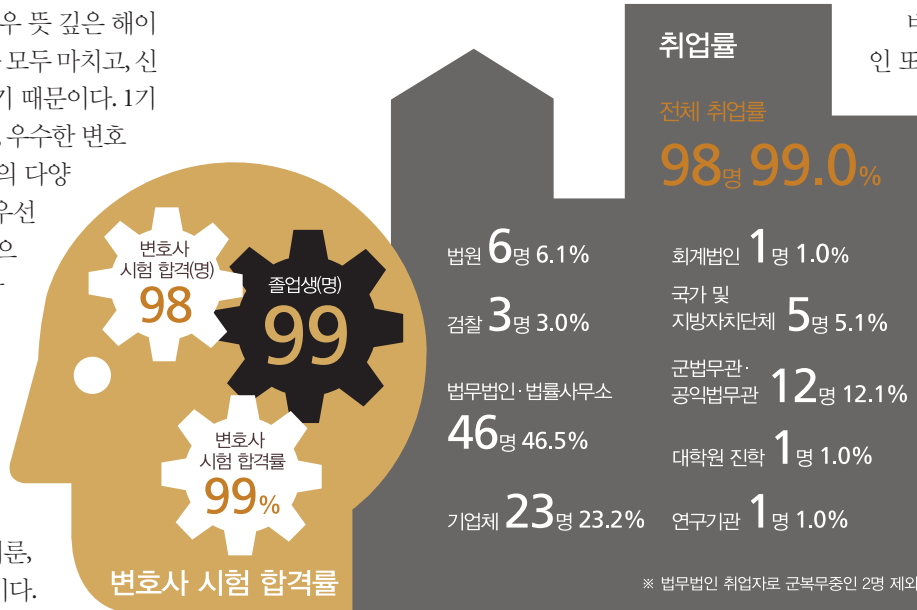
열정과 긍지의 붉은 색으로 피가 붉어짐을 느낀다. **KL**

GRADUATE REPORT

# 로스쿨 변시합격 · 취업률 전국 '최우수'

## 변호사시험 전국 최고 99% 합격률 달성, 취업률 99%로 우뚝

2012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매우 뜻 깊은 해이다. 2009년 입학했던 1기생들이 3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신입 변호사로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해이기 때문이다. 1기 졸업생들은 본교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우수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변호사 시험에서는 99%의 합격률을 이루었으며, 이는 전국 로스쿨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합격률이다. 또한 1기 졸업생들은 힘든 취업상황에도 불구하고 99%라는 놀라운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이 이렇게 고르게 우수한 학교는 본교뿐이며, 이는 여러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졸업생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이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훌륭한 성과이다.



비율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46%의 졸업생들이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3%는 국내 유수의 기업체에 등지를 들었다. 법원과 검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졸업생도 14%로,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등 다양한 직역에서 종사하고 있다. 아울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 졸업생들의 경우에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12%에 이른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래 첫 졸업생들이 이렇게 사회 각 분야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로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여러 법조선배님들의 맥을 잇는 것이고, 아래로는 매년 배출될 법학전문대학원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선례를 세우는 일이다. 1기 졸업생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기원한다. **KU**

GRADUATE INTERVIEW

로펌 변호사 편



# 5人 3色, 선배들에게 길을 묻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이자 각각 검찰과 법원, 로펌 변호사를 대표하는 다섯 선배들과의 인터뷰를 앞으로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일찌감치 본인이 선택한 길을 신중하게 다지고 있는, 생각도 마음의 여유도 그 깊이부터 남다른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이다.

**졸업 이후 현재 근황을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 오지현** '법무법인(유한) 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하영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지적 재산권부'에서 1년차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황병훈** '법무법인 율촌'에서 현재 송무그룹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법학사의 경우) 선배님께서 법조인이 되고자 결심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오지현** 저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로스쿨 시대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곳이 바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스쿨 체제는 학부와 다른 점이 많지만, 익숙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영진** 지나치게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직업을 통하여 자아 실현을 함과 동시에, 직접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떤 직업이든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을 매개로 한 일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 또는 기업정책 방향에 법률의견을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간접적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병훈** 고대 법전원에 들어오기 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현 투증권 매각 사후관리 업무와 한국전력 주식 등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니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더군요. 특히 M&A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다양한 분쟁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어 법률적 소양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마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가 시행됨에 따라 좀 더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마인드를 쌓고 싶다는 생각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죠.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생활 중에서 학업 이외에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오지현** 저는 재학중 CLEC의 회장, 조교 등을 맡으면서 리걸 클리닉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활동 초반 리걸 클리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의 지원을 받아 미국, 중국 우수 로스쿨(법과대학원)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09년 여름에는 미국 스탠포드, 버클리 등 우수 로스쿨을 방문하였고, 2010년 초에는 중국 북경, 청화, 인민대를 방문하여 리걸클리닉 담당 교수, 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리걸클리닉의 모습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걸클리닉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 가을 CLEC 제1호 자료집을 출간하였던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하영진** 2009년 로스쿨 1기 부학생회장을 맡았습니다. 로스쿨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하나하나 다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았습니다. 처음 학생회칙을 만들 때, 동기들이 모여서 조문 하나하나 낭독해가며 축조심사를 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첫 학기를 마치고, 학생회에서 동고동락했던 동기들과 여행을 갔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때와는 달리, 다들 책임감 있



오지현

는 어른으로 만나서 쌓은 우정 내지 동기애라 더욱 신뢰가 돈독하고 그만큼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황병훈**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1기들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각종 제도들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다는 데 남다른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학생회의 구성이나 임기 등을 정한 학생회칙도 어느 순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토론과 합의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회장 부회장 선출 안전에서 집단지도체제 안전까지 학생회 구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1차 학생총회, 그때의 뜨거운 열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며칠밤을 준비한 끝에 나름 성과를 거두었던 가인법정변론대회나 모의공정거래위원회도, 하얗게 불태웠던 어울림픽과 고연전의 낮과 밤도 있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황병훈** 튜터링 제도는 고려대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비법학사 출신 로스쿨생들이 법학사 출신 로스쿨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려대 법대 출신의 석·박사나 사법고시 2차 시험 합격 후 예비 사법연수생 선배들이 직접 찾아와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나면,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나 어떤 참고자료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옵니다. 저 역시 2학년 때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튜터링에 동참했습니다. 배우고 얻는 것이 많았지만 튜터로서 튜터를 가르치는 과정도 행복했습니다. 배운 것이 정말 많았죠.

###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님 혹은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다면요.

**오지현** 로펌 시스템 상 저년차 어쏘 변호사들에게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강의를 들어두면 쟁점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송무, 중재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소위 특성화 분야로 알려져 있는 국제투자, 노동, 공정거래, 저작권, 민간투자 등에 관한 이슈들도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청강해두었던 수업들도 나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그렇지만 특히 송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들은 민사집행, 보전소송 이슈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 민사집행법 수업을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영진** 실무를 갖 시작한 입장에서, '민법'을 바탕으로 한 문

제해결 능력, '헌법'과 법치주의적인 사고를 기초로 한 문제의식은 꼭 재학 중에 갖추고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기본법을 충분히 체화시켜서 졸업한다면 어떤 일에 부딪혀도 자신 있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법연습, 민사재판실무와 같은 심화과목을 수강하면서, 민사법 기본과목을 다시 다져보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웠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선배님께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처음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졸업 이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느끼신 바를 듣고 싶습니다.

**오지현** 지역 간에 차이는 있지만, 한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실무에 나오면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실무에 나와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울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 이러한 점은 연수원 출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우려가 안팎으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를 불식시키려면 1~4기 모두 실무에 나와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내가 듣기로는 바로는 현재까지 실무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한 평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 후배님들도 미리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실무에 나와서 '꼼꼼하고 눈치 빠르게' 일을 배워나간다면, 충분히 인정받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영진**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려나 비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스스로 한 사람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매사에 자신 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내기 법조인으로서의 겸손함도 당연히 갖춰야 하는 미덕이지만, 이와는 별도로 스스로 확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인 프로페셔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병훈**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법전원 출신들도 연수원 출신들 못지않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자격증만 있으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던 시기는 지났지만,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법전원 출신들도 충분히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기들은 "우리가 잘 해야 후배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후배님들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법률적 지식과 리걸마인드를 배양하여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이 자리를 빌려 법조계 선배님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지현**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선배들의 진솔한 생각과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 목표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10, 20년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변화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합니다.



황병훈

**하영진** 어디서 만나도 따뜻하게 후배로 맞아주시고, 격려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후배라고, 기꺼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든든한 후배법조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황병훈**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도 교우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려대 법조 교우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지현** 재학 중 공부 외에도 취업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상황은 어렵겠지만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진** 사람이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3년의 로스쿨 과정이 공부와 취업에만 집중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지만 동기, 선후배들과의 관계, 학교에서 교수님들과의 관계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전문대학원의 특성상 졸업 후의 실무와 학교생활이라는 것이 엄밀히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생활도 법조인으로서 삶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좁게는 저 개인의 Reputation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처음 형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더 넓게는 졸업하고 사회에서 그들이 가장 큰 힘이자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병훈** 시험을 볼 때는 법을 잘 모르면 스스로 낮은 학점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법조인으로 활동할 때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많은 법적인 문제를 접하다 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둘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지금이 아니면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 법적인 기초를 쌓고 리걸마인드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부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공부에만 매몰되지는 마시고,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3년 동안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회에 나오면 로스쿨 동기만큼 든든한 친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건강도 유의하시어 법조인으로서의 긴 사회생활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KL

Global KU

# MEET the WORLD-CLASS TEACHING

개교 이래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을 비롯해 많은 저명한 신입교수님들을 모셔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에도 세 분의 신입교수님을 발탁했다. 그 중 미국의 여러 로펌이 한국에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FTA 등으로 인해 법률시장 또한 세계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법학의 글로벌화를 대비해 영어 원어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Qureshi 교수님과, 법과대학 동문선배이자 새로운 헌법 교수로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차진아 교수님, 두 분과 진행한 특별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우수한 교육환경,  
원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매료됐죠”

## Asif Hasan Qureshi Prof.

Qureshi 교수님은 영국과 파키스탄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다. 교수님은 파키스탄의 외교관을 지내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파키스탄을 떠나 중국, 튀니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냈다. 이후 12살부터는 영국에서 지냈는데 대학과 전문 자격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을 영국에서 이수하고,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공부하였으며, 책과 칼럼 활동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하기 전에 국제법 분야에서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교수님께서 국제통상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한 국제경제법에 관해 몇 권의 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야의 법을 전공하셨는지요?

국제경제법, 특히 WTO에 관한 법을 일반 국제법과 함께 전공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번 학기에 진행하고 계신 강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번 학기에 저는 대학원과 로스쿨에서 각각 하나씩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로스쿨에서 맡은 강의는 ‘국제경제법’입니다. 이 강의는 국제 경제관계의 핵심을 형성하는 국제 경제 분야의 여러 쟁점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제 경제관계의 작용에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다 보면 일부 주요 국제 경제 문제에 깊이 집중할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특히 초점은 WTO의 특정 레퍼런스와 Bretton Woods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제 규범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가 간의 국제 경제 관계에 대하여 논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국제 경제 관계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는 선택적인데, 주로 국제통화법, 국제무역법 그리고 국제개발의 일부 측면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영국과 대한민국은 문화, 언어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의 교수 일을 결정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택에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특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의 경우 자신의 작업환경과 일하는 과정에서 존중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이신 박노형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감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저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귀가하는 택시에 박노형 교수님께서도 함께 타셨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작별인사와 함께 박노형 교수님께서 체류기간 동안 보여주신 많은 노력과 친절함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박교수님은 마침 퇴근시간이라 교통상황이 매우 혼잡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앉으신 채 “아직 작별인사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제 인사를 막았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추었을 때, 그는 택시에서 내려 악수를 청했고, 정중히 인사한 뒤 다시 택시에 탔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 그에 대해, 더 나아가 한국인 전체에 대해 너무나 따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떤 교육기관인지, 어떤 나라인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곳에 속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외국 우수대학들의 학생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굉장히 예의바르고, 성실하며 열정적입니다. 함께 하게 된 것을 정말 즐겁게 생각합니다. **KL**



## 차진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2년 상반기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교수인 차진아 교수를 새로운 헌법 교수로 선임하였다. 새롭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원이 된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독일로 건너가 Saarbrücken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에 귀국한 후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 우리만의 자긍심과 저력으로 세계를 향하십시오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남들과 다르게 교수의 길을, 그중에서도 헌법 교수의 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학부를 다닐 때부터 법 과목들 중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학문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시험을 준비한 것은 95년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논의를 지켜보면서 설사 앞으로 학문을 할지라도 법률실무가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전공인 헌법 영역에서 실무가 학문에 도움이 되는 비중이 민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 분야에서의 그것보다 높지 않았고 민 끝에 바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현재 특별히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이상은 무엇인지요?

헌법은 그 특성상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위논문의 주제이기도 한 사회국가와 조세분야에 특히 집중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에 관련된 부분도 독일에서 귀국 후 지금까지 조금씩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등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수로서의 꿈은 무엇보다 정말로 실력 있는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에 부임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학자로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력 있는 학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임한 후 현재 공법종합연습이라는 과목을 강강의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다면?

아직 학기가 진행 중이라 소감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만, 현재까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수업에 열심히 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한 이전 학교에서도 물론 학생들을 사랑하고 강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수강생들 모두가 단순한 학생이 아닌 '내 후배'라는 생각이 들어 더 좋은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만의 장점에 대해 느낀 점이 있으신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장점을 느낀 것은 얼마 전 있었던 고연전에서였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함께 응원을 하고 뒤뚱이를 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강점이라 한다면 무엇보다 학교 전체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그 고려대학교에 속한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라 할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고려대학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에 속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속해있는 자신이 최고라는 점을 잊지 말고 언제나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자긍심을 통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은 무엇보다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KL

### Message from Dean

##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평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의 전입금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우 재단의 전입금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우리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법대교우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우들께서 직·간접적으로 장학금이나 발전기금 등을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CJ법학관(이재현 교우 기증)과 해송법학도서관(정유근 교우 기증)은 물론 황의빈 교우님의 장학기금 등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럼에도 1905년 보성전문학교를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면서, 앞으로 국내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최우수 법학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 연구 및 관련 국제적 활동 등에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모금의 필요성을 주창합니다. 최근 교수회의에서 재직 교수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가칭 '교수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교우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컨대, 학년별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우들의 송년 및 신년 모임을 CJ법학관에서 개최합니다

이제 2012년도 그 끝을 향하여 바빠 지나가고 2013년의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CJ그룹의 이재현 회장님이 기증하여 11월 9일 준공된 CJ법학관의 지하에 100명 내외가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학술행사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지만, 우리 교우들이 송년 또는 신년 모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 기별 법대교우회가 결성되지 않은 학년의 모임을 적극 권장합니다. 교우들의 모임에서 고대 법대의 현황도 설명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대 학사지원부 백나실 과장 (02-3290-1421)에게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형 원장 드림



### 고 이항녕선생 기념행사 개최 고 이항녕 선생 4주기 기념 유품전시회 및 강연회 열려

원로 법학자인 소고(小臯) 이항녕(李恒寧·1915~2008) 선생 4주기를 맞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이항녕의 학문과 삶'이란 주제로 유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2일 오후 4시에는 제2회 '이항녕 기념강좌'를 개최, 본교 명순구 교수가 '이항녕의 학문과 삶'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는 등 고 이항녕 선생의 뜻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하나 되는 한마당' 2012 정기 고·연전 참가 친선 경기에서 3승 2패로 2년 연속 종합우승 쾌거

지난 9월 14일 잠실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는 '2012 정기 고·연전'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연세대학교와의 정기 친선대회가 시작된 14일 첫째 날에는 야구, 농구, 빙구 경기가, 둘째 날인 15일에는 럭비,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다. 본교는 아이스하키와 럭비 경기에서 패하긴 했지만 야구, 축구 및 농구에서 3승을 거둬서 종합전적 3승 2패로 작년에 이어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정기 고연전 양일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및 재학생들은 잠실에서 열띤 응원을 펼쳤으며, 15일 폐막식 후에는 학생회가 마련한 화합의 자리에서 모두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 법학전문대학원 5대 학생회 선출 및 운영 재학생 의견 반영해 특강, 복지 등 다양한 활동 총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3월 26일 학생들의 투표로 5대 학생회를 배출하였다. 그동안 여러 고심 끝에 올해부터 1년을 운영임기로 정한 학생회에는 학생회장 하성재(고법 졸업) 부학생회장 김성은(서울대 졸업), 임현수(KAIST 졸업)를 비롯하여 10개의 집행부가 꾸려졌으며, 아울러 21명의 국장들이 학생들의 복지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학생들의 유치를 위해 각 대학에 직접 방문하고, 학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한 학생회는 현재 주요 안건의 경우 전체 학생회원이 모이는 회의를 마련, 학생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에게 과일도시락을 배부하고, 취업 관련 특강 개최, 관련 정보 수합 및 제공 등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완공된 제3법학관과 관련, 보다 효율적인 건물 사용을 위해 설문조사 진행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와 교류하는 자리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협의회'에 참가해 약 1달에 한 번 회의를 가지며, 고려대학교 내 특수전문대학원 학생회들의 모임(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노동대학원 등)인 특수전문대학원 연합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 역대 학생회 소개

역대 학생회	회장	부회장
제1대 학생회 "도움닫기"	천하람	김승아, 하영진
제2대 학생회 "동행 365"	최수남	서민정, 송일두
제3대 학생회 "냉정과 열정사이"	오성현	육은령, 이동훈
제4대 학생회 "Special-K"	이동훈	윤진하, 김용범
제5대 학생회 "기울임"	하성재	김성은, 임현수

### 집행부 소개

집행부	3기국장	4기국장	집행부 주요업무
대외협력국	이승상	김하영	타대학교법전문 학생회 교류, 법대/지전 학생회 교류
전략기획국	이종훈	이혜림, 김승현	건의안 제출에 대한 접근방식 연구, 인터넷정보 수집
정책지원국	남정우	이지현	추상적인 건의사항 구체화,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행정자치1국	김문정	안지영	자치단체위원회와 협조, 신법학관 내 불편사항 확인 및 보고
행정자치2국	이선호	이수진	사무함 관리, 열람실 관리, 도서관내 불편사항 확인 및 보고
교육1국	전보미	정지윤	변시대비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 지원
교육2국	한형석	이동훈	수강신청 문제 개선 연구, 특강 정보 검토
기획재정국	윤여정, 송지연		회계장부 및 예산관리
정보통신국	조경국	이영준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문화복지국	이태훈, 노지은		문화행사(체육제) 담당, 복지정책 건의안 검토

## KULS 학회소식

지난 9월 14일 열린 자치단체연합회의 2012년 2학기 정기총회에서는 자치단체연합회 세부지침 제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생 학회 네 곳에 대한 등록 심의가 진행되었다.

한 시간여 동안 이루어진 총회 과정에서 각 학회의 학회장들은 각각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심의에서는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정식으로 자치단체연합회에 등록되었다.

이번 가을 창간호에서 새롭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회로 출범하는 네 곳을 소개한다.

### '인권' 관련 법문학 탐구하는

#### [문학회]

문학회는 지난 1학기에 처음 탄생하여 국내 단편소설을 위주로 인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세미나의 결과물과 창작물을 토대로 학회지를 발간하였다. 학회의 주제인 법문학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 있으나, 1990년대 기초법학의 한 분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현재에도 독립된 분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1학기과 유사하게 문학 매개로 한 인권 관련 세미나와 개인 창작물에 대한 비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개최하는

#### [정보통신법학회]

정보통신망 관리 및 규제 법제, 정보통신거버넌스 법제, 사이버 법제 등을 연구하는 정보통신법학회가 이번 학기에 계획하고 있는 활동은 정보통신에 관한 다양한 법률 관련 세미나 주최와 지도교수인 이희정 교수님의 강연이다.

아울러 이번 학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특별 세미나를 열 예정이며, 정보통신법 분야의 외국 사적을 번역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겨울방학에는 별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통신법 관련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 영문 법률저널 학회

#### [KULR(Korea University Law Review)]

학회의 목적은 영문 법률저널인 KULR의 편집과 교육 및 기타 활동 지원이다. 다른 학회와 달리 KULR은 2007년에 처음 탄생하였으며 현재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외에 법학과 대학원생, 학부생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KULR은 2007년 창간 이래 매년 2회 발간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Westlaw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지난 총회에서 KULR이 발표한 운영 계획은 편집 프로세스의 체계화, 웹사이트 항목 개설 등을 통한 대외 홍보활동 강화, 친목도모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이다.

### 주 1회 기도모임 여는

#### [가톨릭 기도모임]

기존에 있던 기독교 기도모임 외에 가톨릭 기도모임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새롭게 탄생하였다. 현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 번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성당 미사에 참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KL**



# CLEC를 아십니까?

법학 실무를 넘어 '인권'에 귀 기울이는 'CLEC'



## CLEC는?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 CLEC(Clinical Legal Education Center)는 예비법조인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자질 함양, 봉사 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된 Legal Clinic(법률상담소)이다. Legal Clinic은 로스쿨 내의 실무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지만, 우선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GLC(Global Legal Clinic)라는 명칭으로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어 2009년 2월 4일 정식으로 개소하여 그 후 CLEC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현재 임상법무실습이라는 실무과목이 개설되어 Legal Clinic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Legal Clinic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Legal Clinic이기도 하다.

## CLEC 주요 활동

### 시범 운영 기간 중 Project활동 01

시범 운영기간에는 Project활동을 주로 진행하였다. 지난 2008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정부에게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때 최대 1조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IOPC Fund 가입을 청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0년 4월 국회에서 재적 145인 중 144인의 찬성으로 IOPC Fund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이 통과되면서 그 결실을 맺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시각장애인들의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 착안하여 주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60여개 기관에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평가서를 보내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역시 많은 기관들의 협조로 상당한 개선 성과를 거뒀다.

### 정식 개소 후 클리닉 운영 02

#### ■ 법률상담클리닉

2009년에는 지역사회 법률상담 클리닉이 설립되어 CLEC가 본격적으로 법률상담을 시작하였다. 법률상담 Clinic에서는 개설 이래 2010년까지 총 207건을 접수하여 145건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에서는 CLEC의 요청으로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신고서'를 시정한 사례도 있고,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시각장애인을 도와 S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 의미 있는 상담사례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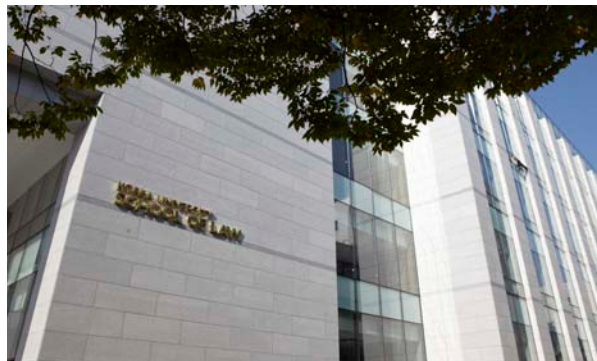
#### ■ 공익인권 클리닉

##### 가. 이주노동자 팀

이주노동자 팀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비추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불평등을 경험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여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재단법인 동천, 성북구청 등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다문화가정 팀

공익인권클리닉의 다문화가정 팀은 우리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점점 다양해져가는 추세 속에 국적과 민족을 불문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열린사회 구현'을 지향하며 새로 출범하였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법제 개선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 다. 사회적기업 팀

사회적기업 팀은 지난 2011년 3월 15일에 설립되었다. 공익적 기업법 학회 '이음'이 그

전신이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제 개선 연구 및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함께 일하는 재단 및 재단법인 동천(법무법인 태평양 설립)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법제처 용역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국제인권 클리닉

##### 가. CSR팀

국제인권클리닉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팀'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저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와 협력하여, 버마 내 외국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채굴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원보유국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 나. HRD팀

국제인권클리닉의 HRD팀(Human Rights Defense Team)은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범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부당히 침해되는 국제적인 사례들을 찾아내어 분쟁해결지원, 소송참가 등 다방면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 ■ 기타 프로젝트

Clinic활동 외에도 시카고 프로젝트 활동이 있었다. 시카고 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Chicago Northbrook에서 재미교포 고형석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하여 고형석씨의 누명을 벗겨드리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고형석씨는 영어를 잘 하는 편도 아니었으며,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기에 미국 경찰에게 실수로 자백이 아닌 자백을 하게 되었고, 그 자백 하나만을 증거로 하여 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CLEC 시카고 프로젝트 팀은 고형석씨의 변호사와 접촉하여 고형석씨의 자백이 한 국문화나 한국어의 특성상 자백이 아님을 입증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 신청서 작성을 도왔다. 현재 고형석씨의 석방을 기다리는 중이다. **KL**

#### CLEC 상담 안내

상담전화 02-3290-1296 (월~금 9:00~18:00, 점심시간 12:00~14:00)

이메일 clec.legalclinic@gmail.com

## ICR센터



## '시장경제 3대 원리'의 법적 발전방향 연구하는 ICR센터

### 삼성·애플 간 특허분쟁 해부하는 세미나 개최로 학계 주목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센터)는 시장경제, 정부규제 그리고 혁신이라는 시장경제의 3대 원리의 정신과 구체적 내용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ICR센터는 2010년 9월에 설립된 이후 불과 2년 만에 최신 이슈들에 대한 다수의 세미나와 컨퍼런스, 전문가 강연 등을 개최하며 한국 법학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ICR센터는 최근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세미나를 시리즈로 기획하여 국내외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제1차 세미나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는 15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어 11월 13일에는 제2차로 '혁신·경쟁-특허: 3자의 관계'를, 11월 29일에는 제3차로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중국'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ICR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탁월한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광범위한 국제 연구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법학계의 허브 연구기관으로서 아시아 국가 간 연구 및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주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ICR센터는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도 다수의 대학원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 학부생이 연구원과 인턴의 자격으로 ICR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은 후 각계각층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KL**

교수 신간소개 및  
학술행사 일지

## 실무가 필독서에서 인권, 프랜차이즈까지 ‘다양한 주제, 고른 호평’

2011년과 2012년에는 유난히 새로운 책이 많이 출간되었다. 특히 2012년에는 기본권 등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교수님들의 관심이 높았다. 대내외적으로 너른 관심과 호평을 받고 있는 다양한 신간을 소개한다.

### 박경신 교수

2011년 저술하신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는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추천도서로 지정되었다. 2012년 신간 <진실 유폐죄(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는 법학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교수님은 이번 책을 통해 독자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 이주원 교수

실무가, 학생 모두를 위한 <특별형법>을 새로 출간했다.

### 이준일 교수

한국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인권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으로 화제가 된 기존의 ‘인권법’을 보완한 <인권법 제4판>을 저술했다. 또 <가족의 탄생(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를 통해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짚고 미혼모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기본권 충돌 문제, 입양과 관련된 여러 기본권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위의 두 책과 함께 역시 2012년에 <차별 없는 세상과 법>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최영홍 교수

<국제 프랜차이즈 계약 입문>을 저술했는데, 그동안 프랜차이즈 관련 책이 없어 고생하던 실무가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하명호 교수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를 저술했다.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교수님은 이러한 신체의 자유와 그 보장수단인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법률적 차원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를 입법화한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론을 전개했다.

이렇듯 기본권 관련 분야 외에도 교수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간을 발표했는데, 실무가와 학생 모두를 위한 책이 많아 골고루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 많은 교수님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하시는 교과서에 대해서 판례와 이론 등을 보완한 신간을 출간하며 변화하는 판례와 이론을 학생들이 모두 잘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간을 출간하지 않으신 교수님들도 활발한 논문저술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연구내용을 수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계의 동향을 빨리 파악하고 실무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KL



### 신간소개

- 김기창 "Aliens in Medieval Law" (Cambridge)
-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 1" (법문사)
- 김용재 "자본시장과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인현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Wolters Kluwer)
- 김정호 "회사법 제2판" (법문사)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 11판" (신조사)
- 류지태, 박중수 "행정법신론 제 15판" (박영사)
-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 박경신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해피스토리), "진실 유폐죄(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다산초당)
- 박기갑 "전쟁과 국제법" (삼우사)
-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 박지순 "사회보장법" (신조사)
- 배중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 "신형사소송법 제4판" (홍문사)
- 신영호 "韓國家族關係登錄法" (日本加除出版)
- 신창섭 "국제사법" (세창출판사)
- 안법영, 윤재왕, 율김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 윤남근 "주해 형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기수, 유진희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
- 이상돈 "경쟁과 형법" (법문사)
- 이준일 "인권법 제4판" (홍문사), "가족의 탄생(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 (고려대학교 출판부), "차별 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 이주원 "특별형법" (홍문사)
- 장영수 "헌법학 제6판" (홍문사)
-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5판", "상법강의(하) 제14판" (박영사)
- 조영선 "특허법 제3판"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제10판" (홍문사)
- 차진아 "헌법기록문제" (법문사)
- 최영홍 역 "국제 프랜차이즈 계약 입문"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 하명호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 하태훈 "헌법사례연습 제3판" (박영사)
- Frank Bonn, "Der Sanktionsgedanke im Bürgerlichen Recht" (BWV ·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 주요 학술행사 일지

- 2012. 8. 17~1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2 한중학술교류세미나>
- 2012. 9. 6 ICR센터 국제심포지엄 <경쟁법 사건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미국과 EU의 관점 분석>
- 2012. 9. 6 중국정법대학교 법학원 김철 교수 특강 <중국 환경보호법 개정 논의>
- 2012. 9. 11 New Hampshire 대학 로스쿨 학장 John T. Broderick, Jr. 특강 <The Franklin Pirece Center for IP—Proud of the Past—Embracing the Future In Asia>
- 2012. 10. 4 독일 Mannheim대학교 법대 교수 Dr. jur Jochen Taupitz 특강 <Ethical committees in Germany>
- 2012. 10. 1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대회 <빈곤과 사회보장법>
- 2012. 10. 18 WTO 사무총장 알레한드로 하라(Alejandro Jara) 특강 <Present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WTO>



###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준공

## 고대법학의 새 시대를 여는 이정표로

2012년 11월 9일 CJ법학관이 준공되었다. CJ법학관은 CJ그룹 이재현 회장(법학 80)이 130여억 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건립하였다. CJ법학관의 준공은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체제를 전환한 후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84년 (구)법학관의 준공은 50여 년간 대학 본관을 함께 사용하다가 법과대학 동문들의 힘으로 독립된 법과대학 건물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고, 2001년 신법학관의 준공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해송법학도서관의 준공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법학전문도서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대법학의 자긍심이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 최대 규모와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건물들은 준공될 때마다 그 시대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 왔다.

CJ법학관은 지하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지하 2층에는 서고가 마련되고 지하 1층에는 국제 규모의 학술회의장 2실이 들어서 각종 학술회의를 유치하게 된다. 지상 1층에는 (가칭)정의라운지와 공익법률상담소, 여학생휴게실과 학생편의시설이 위치한다. 2층 전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개인학습실이 마련되는데, 학생 1인당 1석이 보장되어 충실한 학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3층은 수업과 스터디를 위한 시설들로 채워지는데 11실의 그룹학습실과 세미나실들로 구성되며, 4층에는 법학연구원 및 연구원 산하 연구센터들이, 5층에는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산학연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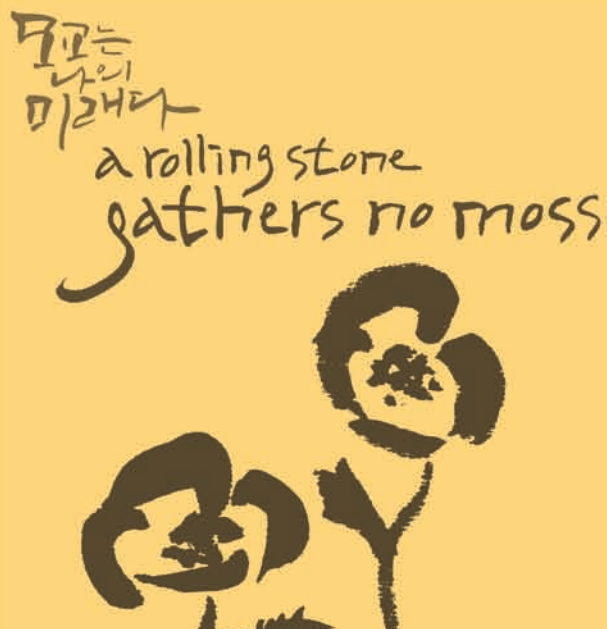
## 110년 역사 자료 수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110년 역사]**를 증언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후 집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집자료

졸업증서, 학위증서, 졸업사진첩, 상장, 사진, 학생증, 통학패스, 강의노트, 교과서, 참고서, 편지 등 집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02-3290-1421)



###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안내

## 숭고한 기부철학이 세계의 리더를 만듭니다

교육시장의 개방, 세계 유수대학들과의 무한경쟁 속에서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세계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의 경우 교우, 기업 및 일반인들의 기부금이 대학 운영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학을 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세계를 선도하는 법학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금 약정 및 납입 문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02-3290-1421)

#### 기부금의 종류 및 용도

- |  |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장학기금</div>      |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석·박사) 등의 학업 지원     |   |
|  | 황의빈교우장학금      STX글로벌리걸리더장학금        |   |
|  | 만송장학금              남촌장학금           |   |
|  | 겸선회장학금          문철순장학금             |   |
| 도선사업회장학금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발전기금</div>      | 연구와 학문발전을 위한 지원                    |   |
|  | 공익법무교육 지원      법학연구원 연구지원          |   |
|  | 국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법무 활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ian Business Lawyer, Korea University Law Review 발간.</li> <li>• 각종 학술세미나 개최</li> </ul> |
| <div style="background-color: #333; color: whit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교육지원 시설기금</div> | 법학교육의 미래 100년을 선도할 사명감에 가치를 더하는 기부 |   |
|  | 법학관, 신법학관 개선기금                     | 교육환경개선기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법학관 옥상공원조성기금</li> <li>• 도서구입기금</li> <li>• 튜터링프로그램지원기금</li> </ul>                        |

1905 대한민국 최초 [보성전문학교 법학부] 개교  
1945 대한민국 건국의 법률적 토대 확립  
1984 고려대학교 법학관 준공  
2001 신법학관 준공  
2007 해송법학도서관 준공  
2009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취업률 99% 달성  
2012 CJ법학관 준공



# GO, Pioneers!

대한민국의 역사, 그 모든 순간과 동행했습니다.  
꿈틀거리는 법 지성의 열정으로 이 땅을 지켰습니다.  
법학교육의 희망을 넘어 세계 법학계의 리더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더 큰 내일로 뛰겠습니다.

## 미래 법학리더의 산실 [CJ법학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중심에 서게 될 CJ법학관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정의라운지와 공익법률상담소, 세미나실, 연구센터, 개인학습실, 각종 편의시설 등 미래 법학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글로벌 KU'의 메카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